

IBKS Spot Comment

IT/소재/부품/장비

이건재

02) 6915-5676

geonjaelee83@ibks.com

[바이오 소부장]

우시바이오로직스, Single Use 리액터 투자 확대 전망

What's New:

글로벌 2위의 CRDMO(바이오 의약품 위탁 연구, 개발, 제조 기관) 기업인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일회용(Single-use) 기반 제조 플랫폼의 경제성과 대형 상업 생산에서의 실효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일회용 바이오파이퍼와 배이 기존 스테인리스 설비 대비 더 낮은 초기투자 비용, 더 적은 설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과 친환경적 요소를 모두 충족 시킨다고 밝힌 것이다.

과거에 Single Use 설비 사용이 제한되었던 이유는 항체 생산의 역가성(Titer; 배양액 1L당 목표 항체 농도)이 2g/L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에, 충분한 산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만L급 스테인리스 리액터의 대형 설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.

현재는 역가가 8~10g/L 수준으로 상승해 5~6,000L급 설비로도 배치당 의미있는 산출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일회용 설비 기반 대량 생산의 경제성이 충분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.

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일회용 제조 공정을 통해 배치당 6,000L 이상의 상업 생산을 352건 성공적으로 완료했고, 그 중 203건은 1만 2,000L의 대형 상업 생산임을 밝혔다. 이는 일회용 제조 설비가 비용 경쟁력, 공정 유연성, 전환 민첩성 측면에서 대형 생산 규모에서도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시사하며, 대규모 상업 생산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.

표 1. 우시바이오로직스 일회용(Single-use) 설비 기반 생산 실적

생산 스케일(L)	배치 수(건)	비중
6,000	98	28%
8,000	20	6%
10,000	26	7%
12,000	203	58%
16,000	5	1%

자료: 우시바이오로직스, IBK투자증권

So What?:

국내 CDMO기업들도 향후 CRDMO로 발전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유연성과 비용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결국 그동안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장비의 주를 이루던 스테인리스 리액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추가 투자에 대한 계획은 운용 유연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Single Use 형태의 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.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(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)이 없습니다.
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